Vol.204
2019. 05

금융투자
Financial Investment



해외금융투자산업 동향
- 시장 및 산업 관련 동향
- 주요 플레이어(player) 동향
- 규제 관련 동향

COMPLIANCE NEWS
- 자율규제 관련 추진사항

통 계
- 펀드 수탁고
- 채권장외시장통계

금융투자협회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C·O·N·T·E·N·T·S



해외금융 투자산업 동향

시장 및 산업 관련 동향 03

01 인공지능기술, 월가 주식·채권 발행시장으로 확대 03

02 자산운용업계, 고객기반 확대 위해 중국에 눈길 04

주요 플레이어 (player) 동향 05

03 Charles Schwab, 월구독방식 디지털 자문서비스 런칭 05

04 JPMorgan, 블록체인 시스템 활용 확대 05

05 노무라증권, 10년만에 순손실 기록후 해외사업 축소 단행 07

06 UBS-도이치뱅크, 자산운용사 합병 논의 07

07 Wells Fargo, 퇴직연금사업 Principal Financial에 매각 08

08 소프트뱅크, 지급결제 핀테크업체 '와이어카드'에 900만유로 투자 09

규제 관련 동향 10

09 英 FCA, 브렉시트 이후 금융규제의 미래 검토 10

10 英 FCA, 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 11

COMPLIANCE NEWS

자율규제 관련 추진사항 12

01 주식워런트증권 거래설명서 개정 12

02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개정 12

03 코넥스 주식 거래에 관한 위험고지 개정 13

통계

펀드 수탁고 14

채권장외시장통계 16

해외 금융투자산업 동향

시장 및 산업 관련 동향

01 인공지능기술, 월가 주식·채권 발행시장으로 확대 (4/24, FT)

■ 월가의 전통적인 업무방식이 혁신기술로 인해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주식·채권거래의 유통시장에 초점이 맞춰졌던 혁신기술 적용이 발행시장으로 확대되는 추세

- BOA메릴린치는 IPO딜 수행과정에서 획득하는 상당량의 정보 등을 'Predictive Intelligence Analytics Machine(PRIAM)'이라는 머신러닝툴을 통해 관리·분석하여 IPO 예측도를 높이는데 활용 중
- 동 사는 '18.9월부터 유럽 상장딜에 PRIAM를 시범 적용 중인 가운데, 조만간 미국과 아시아 딜과 채권발행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

■ 일부에서는 관계지향적 발행업무 특성상 AI기술로 대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지만, 일각에서는 AI기술이 잠재적 발행수요가 있는 고객을 재빨리 인지하고, 복잡한 발행업무를 신속·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최근 HSBC도 기업고객의 채권발행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어플리케이션 'My Deal'을 런칭하였으며, 이를 제3의 매수자-매도자-IR담당자간 네트워킹 플랫폼 'WeConvene'과 연계시켜 투자자들이 자사 채권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활용 중
- 또한 씨티, JP모건, BOA 등도 공동컨소시엄을 통해 회사채발행 온라인플랫폼 'Project Mars'를 런칭한 가운데, 이는 발행주관사가 관련 법적문서, 신용등급 보고서, 가격정보 등을 투자자에게 전달하고 투자 니즈·주문 등을 파악하는데 활용될 예정

02 자산운용업계, 고객기반 확대 위해 중국에 눈길 (4/15, FT)

■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아시아 시장, 특히 중국에서의 고객 기반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동 지역에 유입되는 신규자금은 총 유입액의 1/3 이상을 차지

- 모건스탠리와 올리버와이먼에 따르면, 현재 신흥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기반 운용규모는 현재 5.3조달러에서 2023년 9조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년내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 투자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

■ 모건스탠리와 올리버와이먼은 향후 글로벌 운용사들이 현지 수요에 맞는 상품라인업과 유통 전략을 취한다면 중국내 입지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전망

-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2023년까지 중국내 시장점유율을 현재의 5%에서 10%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신규로 유입되는 운용자산은 5,000억달러, 수익은 4배 증가한 4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

-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CEO Larry Fink는 최근 주주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중국이 자사의 성장계획의 중심이라고 거듭 강조

■ 지금까지 중국은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에게 폐쇄적이었으나, 최근 들어 점차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

- 중국 투자자들 내에서도 분산된 자산포트폴리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주식, 사모펀드 등에 역량이 있는 외국계 운용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

- 중국내 은퇴·노후대비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같이 글로벌 운용사들에게 시장을 개방하려는 움직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주요 플레이어(player) 동향

03 Charles Schwab, 월구독방식 디지털 자문서비스 런칭 (4/1, Bloomberg)

■ 찰스스왑(AUM 3.5조달러)은 최근 자사 하이브리드형 로보어드바이저서비스 'Schwab Intelligent Advisory'의 옵션 중 하나로 월구독 방식(subscription-based fee) 서비스를 런칭

- Schwab Intelligent Advisory는 현재 관리자산의 0.28%를 보수로 수취하고 있으나, 4월부터 월구독하는 신규고객들에게는 300달러의 선취수수료와 월 30달러의 정액보수를 수취, 다만 기존고객의 경우 선취수수료는 제외
- 찰스스왑은 이같은 보수 구조의 도입이 넷플릭스 등의 구독방식에 익숙한 고객들에게 유용할 것이라며, 보다 단순하고 투명한 구조를 선호하는 고객들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

■ 구독기반 보수 구조는 IT업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방식으로, 이미 넷플릭스, 아마존, 애플 등과 같이 방대한 고객기반을 확보한 기업들은 소액의 월정액 수취로도 막대한 수익을 창출

- 현재 찰스스왑은 30만계좌, 370억달러 자산을 디지털서비스로 제공 중인 가운데, 업계전문가는 IT 플랫폼을 기반으로 수백만 명의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업의 경우 구독방식 모델이 매우 수익성 높은 유용한 모델이 될 것이라 설명

04 JPMorgan, 블록체인 시스템 활용 확대 (4/21, FT)

■ JP모건체이스는 업계 선두의 블록체인 기술을 은행업권내 지급결제시스템으로의 적용을 적극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동 플랫폼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핀테크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 중

- JP모건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한 IIN(Interbank Information Network)은 상호접속 가능한 원장(mutually accessible ledger)을 통해 은행간 지급결제 정보 공유를 가능케하는 플랫폼으로, 지난해 글로벌 대형은행 75개사가 동 사업 개발에 참여

- 현재는 220개 이상의 은행이 신속한 결제오류 해결을 위해 자사의 결제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IIN 서비스에 가입 중

- 은행들은 IIN을 통해 기존에 수 주간의 결제지연을 야기했던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신속하게 해결하게 되었으며, TransferWise, Revolut, Ripple 등 핀테크 결제 업체들의 역외 지급결제사업 확대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그간 은행업계가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에 다소 냉소적이었던데 반해, JP모건은 동 기술을 적용한 IIN의 기능 확장을 위해 지속적인 개발을 추진해왔음

- JP모건 Global Clearing 사업부문장 John Hunter는 계좌번호, 분류코드, 주소 등의 오류로 인해 며칠 후 지급결제가 거절될 가능성을 제거하고, 유효한 계좌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했다고 설명

- IIN은 결제 오류율이 높은 국가간 지급결제에 더욱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올 3분기내에 국내·해외간 모든 결제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JP모건은 핀테크업체들이 IIN 네트워크를 이용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3분기내 런칭을 목표로 샌드박스도 설치하고 있는 가운데, 테스트환경을 통해 개발자들에게 보안메시지, 문서파일 전송, 데이터 모델링 등을 제공할 예정

- 현재는 IIN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나, 향후 각 은행별로 사용하는 기능에 따라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

- JP모건은 네트워크의 장기 소유권은 어떻게 플랫폼이 운용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으며,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생태계로써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 언급

05 노무라증권, 10년만에 순손실 기록후 해외사업 축소 단행 (4/9, Reuters)

■ 일본 최대 증권그룹 노무라홀딩스는 2018년('19.3월) 1,004억엔(897백만달러) 순손실을 기록하며 사업연도 기준으로는 10년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

- 노무라그룹의 CEO Koji Nagai는 실적발표 직후 비용절감을 통한 수익개선을 위해 조만간 런던사업부문을 중심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라 언급

■ 노무라증권은 일본내 인구감소, 글로벌 경쟁심화 등으로 사업모델 혁신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2012년 이후 국내 소매지점 156개 중 30여개를 폐점한 바 있으며, 금번 조치로 해외사업도 축소할 것임을 시사

- 해외사업 축소는 주로 미국 및 유럽지역의 채권·외환 트레이딩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

06 UBS-도이치뱅크, 자산운용사 합병 논의 (4/24, FT)

■ 업계에 따르면, UBS와 도이치뱅크의 자산운용사 간에 합병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 DWS*와 UBS 자산운용의 합병이 성사될 경우 운용자산 규모는 프랑스 Axa와 영국 Legal & General을 상회하게 되며, 1.4조유로 이상을 운용하는 유럽 최대 자산운용사인 프랑스 Amundi 수준에 이를 전망

* 도이치뱅크가 79%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6,620억 유로를 운용 중인 자산운용사

- 아울러 11.7조달러의 자산을 운용 중인 세계 최대 운용사 블랙록 등과의 대등한 경쟁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2019년 펀드시장은 운용자산 1조달러 이상의 거대 운용사들이 신규 유입자금의 대부분을 독식하며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금번 논의는 도이치뱅크와 코메르츠뱅크간 합병 논의과정에서 대두된 가운데, 알리안츠, 아문디 등도 DWS와의 합병에 관심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지난해 3월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DWS는 상장 후 불과 4개월만에 운용자산을 연간 3~5%씩 늘리겠다는 성장목표를 철회한바 있으며, 실제로 '18년 운용자산은 5.4% 감소한 6,620억 유로를 기록

- 한편 UBS는 12년 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경쟁력이 약화되며 지난 해 세계 16위로 하락한 바 있음

07 Wells Fargo, 퇴직연금사업 Principal Financial에 매각 (4/9, Reuters)

■ 미국 4위 상업은행 웰스파고는 퇴직연금사업부문을 경쟁 퇴직연금사업자인 Principal Financial Group에 12억달러에 매각한다고 발표

- 금번 매각되는 퇴직연금사업부문은 현재 8,270억달러의 퇴직연금자산을 관리 중이며, 미국외에도 필리핀, 인도 사업을 포함

- 미 연준은 2016년 고객동의 없이 200만개 이상의 계좌를 개설한, 일명 '유령계좌' 스캔들 이후 웰스파고 경영진이 全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이 가능할 때까지 자산규모 확대를 금지시킨 바 있으며, 이후 동 사는 사업부문 구조조정을 단행 중임

■ 한편, Principal Financial Group은 금번 인수를 통해 750만 가입자를 보유한 미국 최대 퇴직연금사업자 중 하나로 올라설 예정

08 소프트뱅크, 지급결제 핀테크업체 '와이어카드'에 900만유로 투자 (4/24, FT)

■ 일본의 소프트뱅크는 독일의 핀테크 선두기업이면서 최근 회계부정 이슈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와이어카드에 900만유로를 투자할 예정

- 소프트뱅크는 와이어카드가 발행하는 5년 만기 전환사채를 매수할 예정이며, 해당 전환사채의 전환 가치는 와이어카드 지분의 5.6% 수준
- 와이어카드는 올해 초 아시아 지역의 회계 부정 혐의로 인해 주가가 급락한 바 있으며, 금번 투자는 와이어카드의 연간 사업실적 발표 전날 전격적으로 발표되어 시장의 관심을 초래

■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부다비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는 일본을 세계 최대의 하이테크 투자자로 변모시키고 있음

- 비전펀드는 이번 와이어카드 투자 이외에도 인도의 Paytm, 영국의 OakNorth 등 글로벌 지급결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여 왔음
- 와이어카드는 소프트뱅크와의 제휴 및 투자유치를 통해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시장으로 진출을 도모할 예정

규제 관련 동향

09 英 FCA, 브렉시트 이후 금융규제의 미래 검토 (4/18, FT)

■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브렉시트 이후 금융규제의 미래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에 착수

- FCA는 영국의 금융산업이 EU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지만, 기본적인 운영구조를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

■ FCA는 2019~2020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재 직면한 과제는 영국 금융산업이 질서있게 EU 탈퇴절차에 임하여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지만,

- 장기적으로는 금융산업을 변화시킬 새로운 기술과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맞춰 금융업권의 비즈니스 모델이 순조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후속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

■ KPMG의 파트너인 David Miller는 감독당국이 새로운 IT기술에 기반한 규제체계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 금융서비스가 전례 없는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FCA는 혁신을 장려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의 트렌드가 금융소비자 보호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

10 英 FCA, 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 (4/25, WSJ)

■ 영국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은 향후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 언급

- 현재 FCA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일부 제한된 조건에서만 대중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웹 사이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련정보를 제공하여 감독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예정

■ FCA는 일부에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미국식 내부고발자(Whistleblowers) 제도에 대해서는 '14년 영란은행과 실시한 실증분석 결과 그리 효율적이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 내부고발자 포상제도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간다는 점을 들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언급

해외 금융투자산업 동향 문의

기획조사실 **서영미** 과장
(ymseo@kofia.or.kr, 2003-9034)

COMPLIANCE NEWS

자율규제 관련 추진사항

01 주식워런트증권 거래설명서 개정(2019.4.16.)

1. 배 경

■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식워런트증권시장 포함)의 정규시장 호가접수시간 단축 예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호가접수시간 단축은 '19.4.29. 시행)

-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개시 30분전부터 장종료시까지 호가접수

2. 개정 내용

■ **호가 접수시간 축소**

- **(종전)** 매매거래시간 개시 60분전부터 장종료시까지
  (변경) 매매거래시간 개시 30분전부터 장종료시까지

02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개정(2019.4.16.)

1. 배 경

■ **한국거래소는 투자자의 거래편의 제고 및 시장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가단일가거래를 위한 호가 접수시간 단축 예고**(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19.4.29. 시행)

- 장개시전 종가매매 시간과 시가단일가매매 시간의 중복 해소를 위하여 단축

2. 개정 내용

시가단일가거래 호가 접수시간 축소

- **(종전)** 최초약정가격(거래개시전 60분간)
  (변경) 최초약정가격(거래개시전 30분간)

03 코넥스 주식 거래에 관한 위험고지 개정(2019.4.18.)

1. 배 경

한국거래소의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개정('19.4.22. 시행) 반영

2. 개정 내용

주식분산 의무 도입(상장 유지요건)

- **(종전)** "~주식분산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변경) "~신규상장시 주식분산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 상장 유지를 위해서는 지분의 5% 이상 분산 의무('19년 4월 도입)

일반투자자 기본예탁금 인하

- **(종전)** 1억원 → **(변경)** 3천만원

COMPLIANCE NEWS 문의
자율규제기획부 **경필구** 대리
(feel9@kofia.or.kr, 2003-9378)

통 계 (Statistics)

Ⅰ 펀드 수탁고

01 전체펀드 설정액

(단위 : 십억원)

구분			'19.1월말	'19.2월말	'19.3월말	'19.4월말	전월말대비	증감률(%)
설정액	(1) 주식형펀드 소계		88,418	87,664	85,384	82,928	△2,456	△2.9%
		(1-1) 국내주식형	67,606	66,986	64,880	62,702	△2,178	△3.4%
		(공 모)	55,855	55,499	53,621	51,701	△1,920	△3.6%
		(사 모)	11,751	11,487	11,259	11,001	△258	△2.3%
		(1-2) 해외[1]주식형	20,812	20,677	20,504	20,225	△279	△1.4%
		(공 모)	15,710	15,673	15,463	15,072	△391	△2.5%
		(사 모)	5,103	5,004	5,041	5,154	+113	+2.2%
	(2) 채권형펀드 소계		104,089	106,832	108,923	111,909	+2,986	+2.7%
		(2-1) 국내채권형	96,051	98,983	101,008	104,014	+3,006	+3.0%
		(공 모)	25,265	26,112	27,372	29,338	+1,966	+7.2%
		(사 모)	70,786	72,871	73,636	74,676	+1,040	+1.4%
		(2-2) 해외채권형	8,038	7,849	7,915	7,896	△19	△0.2%
		(공 모)	2,842	2,880	3,021	2,962	△59	△2.0%
		(사 모)	5,196	4,969	4,893	4,934	+41	+0.8%
	(3) 혼 합 주 식 형		10,033	10,027	10,075	9,809	△266	△2.6%
	(4) 혼 합 채 권 형		17,535	17,480	17,554	17,360	△194	△1.1%
	(5) 재 간 접		26,152	26,525	27,446	28,345	+899	+3.3%
	(6) 단기금융(MMF)		105,371	105,201	99,152	108,077	+8,925	+9.0%
		(법 인)	84,233	84,168	78,104	86,910	+8,806	+11.3%
		(개 인)	21,137	21,033	21,048	21,167	+119	+0.6%
		(구 법)	0	0	0	0	0	-
	(7) 파생상품		49,340	49,401	50,208	50,685	+477	+1.0%
	(8) 부 동 산		76,536	78,108	79,378	81,977	+2,599	+3.3%
	(9) 특별자산		71,764	72,633	75,198	77,077	+1,879	+2.5%
	(10) 혼합자산		24,314	25,792	27,458	29,501	+2,043	+7.4%
	설 정 액 총 계		573,557	579,668	580,782	597,675	+16,893	+2.9%

(자료 : 금융투자협회)

1) 국내에서 설정된 펀드 중 펀드재산의 30% 이상을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이하 같음)

02 전체펀드 순자산

(단위 : 십억원)

구분		'19.1월말	'19.2월말	'19.3월말	'19.4월말	전월말대비	증감률(%)
순자산	(1) 주식형펀드 소계	86,278	86,773	84,581	83,584	△997	△1.2%
	(1-1) 국내주식형	65,540	65,098	62,623	61,237	△1,386	△2.2%
	(공 모)	54,806	54,605	52,512	51,129	△1,383	△2.6%
	(사 모)	10,734	10,493	10,111	10,107	△4	△0.0%
	(1-2) 해외주식형	20,738	21,675	21,958	22,347	+389	+1.8%
	(공 모)	15,843	16,705	16,875	16,906	+31	+0.2%
	(사 모)	4,894	4,969	5,083	5,441	+358	+7.0%
	(2) 채권형펀드 소계	105,742	108,603	110,977	114,082	+3,105	+2.8%
	(2-1) 국내채권형	97,731	100,730	102,955	106,053	+3,098	+3.0%
	(공 모)	25,867	26,757	28,122	30,100	+1,978	+7.0%
	(사 모)	71,864	73,973	74,833	75,953	+1,120	+1.5%
	(2-2) 해외채권형	8,011	7,873	8,022	8,029	+7	+0.1%
	(공 모)	2,845	2,903	3,082	3,023	△59	△1.9%
	(사 모)	5,166	4,969	4,941	5,006	+65	+1.3%
	(3) 혼 합 주 식 형	9,842	9,922	9,964	9,818	△146	△1.5%
	(4) 혼 합 채 권 형	17,743	17,752	17,898	17,798	△100	△0.6%
	(5) 재 간 접	26,462	27,458	28,515	30,324	+1,809	+6.3%
	(6) 단기금융(MMF)	106,101	106,010	99,869	108,878	+9,009	+9.0%
	(법 인)	84,812	84,805	78,661	87,565	+8,904	+11.3%
	(개 인)	21,289	21,204	21,209	21,312	+103	+0.5%
	(구 법)	0	0	0	0	0	-
	(7) 파생상품	48,706	49,090	49,802	50,831	+1,029	+2.1%
	(8) 부 동 산	78,099	79,805	81,163	83,873	+2,710	+3.3%
	(9) 특별자산	70,886	71,911	74,413	76,469	+2,056	+2.8%
	(10) 혼합자산	24,006	25,586	27,504	29,917	+2,413	+8.8%
순 자 산 총 계		573,871	582,916	584,691	605,579	+20,888	+3.6%
펀 드 수		14,565	14,675	14,945	15,151	+206	+1.4%

(자료 : 금융투자협회)

Ⅱ 채권 장외시장 통계

01 발행시장

(1) 발행통계

(단위 : 십억원)

구분	발행액			잔액	
	'19. 3월	'19. 4월	전월대비	'19. 4월	비중(%)
국채	21,448	17,241	-4,207	685,312	34.5
지방채	427	362	-65	20,754	1.0
특수채	5,478	4,650	-828	327,155	16.4
통안증권	12,310	12,430	120	170,860	8.6
은행채	8,950	10,540	1,590	300,347	15.1
기타금융채	3,611	5,306	1,695	147,828	7.4
회사채	7,249	32,492	25,243	290,610	14.6
ABS	2,477	1,816	-661	46,381	2.3
계	61,948	84,836	22,888	1,989,248	100.0

* 상기통계는 원천정보 업데이트 관계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 : 금융투자협회)

(2) 신용등급별 수요예측 결과

(단위 : 십억원)

구분		'19. 2월	'19. 3월	'19. 4월
AA급 이상	발행예정금액	2,530	1,310	3,000
	참여율(%)	435	388	539
A급	발행예정금액	840	280	1,225
	참여율(%)	540	439	899
BBB급 이하	발행예정금액	70	160	180
	참여율(%)	529	365	724

(자료 : 금융투자협회)

1) 참여율 : 발행예정금액 대비 수요예측시 참여금액 비율
2) 수요예측시작일 기준

02 유통시장 (장외채권거래현황)

(1) 채권종류별 거래대금

(단위 : 십억원)

구분	'19. 3월	'19. 4월	전월대비	연간누계	2018년
국채	218,005	190,273	-27,732	759,776	2,300,483
지방채	973	1,156	183	3,835	8,994
특수채	21,654	18,895	-2,760	76,236	220,053
통안증권	85,513	84,431	-1,082	307,222	1,192,440
은행채	50,416	47,722	-2,694	194,818	522,811
기타금융채	30,718	30,445	-273	115,560	277,136
회사채	18,343	16,528	-1,815	66,320	140,932
ABS	8,910	7,445	-1,465	30,597	73,877
합계	434,532	396,895	-37,637	1,554,363	4,736,726

(자료 : 금융투자협회)

(2) 투자자별 순매수 금액

(단위 : 십억원)

구분	'19. 3월	'19. 4월	전월대비	연간누계	2018년
은행	15,139	16,568	1,429	53,095	154,301
자산운용	11,170	11,961	791	43,416	110,543
보험	-711	2,256	2,967	7,015	24,499
기금·공제	2,675	3,998	1,323	8,806	37,180
외국인	6,828	2,719	-4,109	10,796	54,154
개인	650	531	-119	1,544	4,319
기타	5,875	4,199	-1,676	16,923	32,125

(자료 : 금융투자협회)

1) 유통시장을 통한 외국인 순매수를 단순 합산한 수치로, 만기상환 금액을 고려한 통계(순투자)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기타 : 선물, 종금, 상호, 국가, 지자체, 기타법인

03 최종호가수익률 추이

일자	국고채권 (3년)	국고채권 (5년)	국고채권 (10년)	국고채권 (30년)	국고채권 (50년)	통안증권 (91일)	통안증권 (1년)	회사채 (무보증3년) AA-	회사채 (무보증3년) BBB-	CD (91일)
2017년말	2.135	2.343	2.469	2.434	2.436	1.573	1.867	2.678	8.942	1.66
2018년 1월	2.274	2.570	2.769	2.683	2.684	1.538	1.862	2.809	9.049	1.65
2018년 2월	2.266	2.519	2.736	2.717	2.719	1.539	1.859	2.817	9.045	1.65
2018년 3월	2.216	2.427	2.624	2.615	2.604	1.550	1.887	2.795	9.012	1.65
2018년 4월	2.216	2.486	2.713	2.703	2.689	1.556	1.868	2.819	9.039	1.65
2018년 5월	2.195	2.479	2.695	2.679	2.670	1.557	1.851	2.816	9.028	1.65
2018년 6월	2.122	2.352	2.556	2.552	2.499	1.545	1.854	2.766	8.976	1.65
2018년 7월	2.123	2.360	2.567	2.532	2.461	1.568	1.885	2.781	8.983	1.65
2018년 8월	1.916	2.113	2.311	2.260	2.195	1.575	1.783	2.416	8.519	1.65
2018년 9월	2.005	2.175	2.357	2.300	2.231	1.614	1.895	2.449	8.516	1.65
2018년 10월	1.939	2.066	2.243	2.141	2.066	1.692	1.890	2.393	8.444	1.70
2018년 11월	1.897	1.972	2.106	1.974	1.908	1.730	1.883	2.367	8.424	1.90
2018년 12월	1.817	1.884	1.948	1.927	1.922	1.760	1.840	2.287	8.358	1.93
2019년 1월	1.809	1.883	2.001	2.048	2.036	1.751	1.827	2.256	8.340	1.86
2019년 2월	1.813	1.876	1.987	2.053	2.026	1.766	1.843	2.261	8.337	1.89
2019년 3월	1.690	1.708	1.833	1.865	1.842	1.747	1.763	2.163	8.236	1.90
2019년 4월	1.699	1.728	1.845	1.869	1.862	1.738	1.745	2.171	8.245	1.84

(자료 : 금융투자협회)

1) 월말 기준

04 채권 ETF

(단위 : 백만원)

채권 실시간 지수		ETF		
		종목명	일평균 거래대금	시가총액
국고채지수	MKF 국고채 지수	KODEX 국고채	690	94,172
통안채지수	MK 통안채 지수	KOSEF 통안채	12,549	53,802
	KIS MSB 3M 지수	TIGER 유동자금	1,479	780,052
	KIS MSB 5M 지수	KBStar 단기통안채	21,589	185,158
특수채지수	MK 머니마켓 지수	KOSEF 단기자금	3,631	48,556
회사채지수	KOBI 크레딧 지수	KBStar 우량회사채	357	65,557
	KOBI HALF 크레딧 지수	ARIRANG 우량회사채 50	1,350	10,541
혼합지수	KRW CASH 지수	KODEX 단기채권	5,192	1,116,368
	KAP BARBELL 지수	ARIRANG 바벨 채권	43	3,465
	KAP 머니마켓 지수	ARIRANG 단기유동성	217	35,751
	KIS MSB 단기지수	KINDEX 단기자금	76	132,494
	KRW CASH PLUS 지수	KODEX 단기채권PLUS	563	985,009
	KAP 단기 채권 지수	파워 단기채	0	1,267

(자료 : 금융투자협회)

1) 실시간 호가정보(K-BOND)를 통해서 산출되는 채권 실시간 지수를 채권형 ETF의 추적지수로 활용
2) '19. 4월 일평균 거래대금, 시가총액 : '19. 4월말 기준

금융투자 Financial Investment
Vol.204
2019. 05

발 행 월 : 2019. 5
발 행 인 : 권 용 원
편 집 인 : 김 진 억
발 행 처 : 금융투자협회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 금투센터
대 표 전 화 : 02)2003-9000